

도시가계 외식비 지출에 관한 시계열 분석 : 1982년부터 2002년

서정희 · 이성림 · 홍순명*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Time Series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Away from Home for
Urban Household in Korea : 1982~2002

Seo, Jeonghee · Lee, Seonglim · Hong, Soonmyung*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Dept. of Food & Nutrition,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the household expenditure for food outside home using the time-series family expenditure data during 1982-2002.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ing : first, expenditure for food outside home had been increasing, while over all level of the food expenditure had been decreasing; second, two thirds of the total amount of expenditure for food outside home were for regular meals: the proportion of food outside home which were paid to alcohols and other beverages have been decreasing since 1999; lastly, over the half of the total expenditure for food outside home had been spent on Korean food.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consumer trends for food and food industry were provided.

KEY WORDS : food consumption away from home, time series family expenditure data

서 론

과거 식생활 수준이 낮았던 시기에는 외식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에는 외식이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지게 됨에 따라 외식소비문화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 핵가족화, 소비의식

접수일 : 2003년 3월 17일, 채택일 : 2003년 4월 9일

*Corresponding author : Hong, Soonmyu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University of Ulsan, san 29, Moogeo 2-dong, Nam-ku, Ulsan, 680-749, Korea

Tel : 052)259-2374, Fax : 052)259-1699, E-mail : smhong@mailulsan.ac.k

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놀이를 지향하는 여가문화는 외식의 질적 양적 팽창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은 우리나라의 외식문화를 변화시키고 크게 신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외식문화가 음식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도시가계조사 30년(통계청, 1993)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평균 외식비는 1964년 70원이었으나 1970년에는 1,260원으로 천원대에 진입했으며, 1986년에는 11,620원으로 만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 아시안게임 직후인 1987년에는 51.2%, 서울 올림픽 직후인 1989년에는 62.9%의 증가율을 보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외환 위기 전까지는 매년 증가율이 20%를 넘었다. 이렇게 외식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외식비를 다른 식품들과 마찬가지로 필수적 지출로 간주하고 빙곤선을 설정하기 위한 최저식품비 산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류정순과 박혜련(1996)¹¹⁾은 1993년 4인 근로자가계를 대상으로 앵겔계수와 변형앵겔계수의 비교 및 소득탄력성을 검토한 결과 외식비는 빙곤선 산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이주(1988)²⁾는 1964년부터 1986년까지 외식비의 소득탄력성을 조사한 결과 1970년부터 1972년, 1975년부터 1976년은 사치재적인 성격이 나타났고, 1977년부터는 소득탄력성이 점차로 감소하면서 정상재적 성격을 보였다고 하였다. 김미향(1988)³⁾의 1975년부터 1985년까지의 식료품 소비구조분석에 의하면 총식비중 외식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었고, 1984년 이후부터 외식이 필수재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김정숙(1992)⁴⁾은 1970년부터 1989년까지 도시가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외식비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모두 소득탄력성이 2가 넘어서 사치재였는데, 70년대보다 80년대 더 높아졌다고 하였다. 양세정(1991)⁵⁾은 1970년에서 1990년까지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외식비가 총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70년 0.9%에서 80년 1.8%, 85년 3.1%로 차츰 증가하였고, 87년에는 4.6%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외식비의 소득탄력성은 1985년에는 1.3을 넘어 선택재로 분류되었으나, 1990년에는 1과 1.3 사이로 낮아져 준선택재로 분류되었다.

국은경제연구소(1993)⁶⁾는 1981년부터 1991년의 한일 양국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행태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외식비는 일본의 경우 75년 총소비의 3.3%에서 86년에는 4.0%로 증가하였으나 그후 90년까지 변화가 없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류정순과 박혜련(1996)¹¹⁾은 1993년 도시가계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계층별 소비패턴 분석을 통하여 외식비의 빙곤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계층별 외식소비패턴을 비교했는데, 외식비와 총식품비에 대한 외식비의 비율은 계층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정현과 최현자(2002)⁷⁾는 소득탄력성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지출비목을 분류하였는데, 외식은 1985년에는 선택재였고, 1990년대에는 준선택재였다가 1995년에는 다시 선택재로 분류되었다고 하였다. 즉 외식의 성격이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주로 소비자학분야에서 소비지출을 분석하는 항목의 하나로 외식비가 포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 1982년부터 2002년까지의 외식비의 전반적인 추세와, 외식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별로 변화추세를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논문에서 1982년을 연구의 시점으로 잡은 이유는 1982년부터 도시가계의 조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외식비지출은 경제사회적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1983년부터 2002년까지의 외식비 지출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20년간 외식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고 외식비지출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해석해 봄으로써 외식문화와 외식산업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자료 및 분석방법

이 논문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1982년부터 2002년까지이다. 도시가계자료는 한 달을 기준으로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가계부 기입은 연

중 내내 이루어지므로 기억에 의존한 지출조사나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의 외식비지출 조사자료보다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제공한다.

통계청에서는 1963년부터 도시가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982년부터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82년 1월부터 비목분류체계를 의료, 교육, 교양오락 등 문화비 부문을 세분하여 9대 비목으로 개편하였고, 1995년에 교육·교양오락을 교육과 교양오락으로 분리하여 10대 비목으로 확대하였다. 도시가계조사에서는 도시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실태와 그 변동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도시가계의 생활수준과 소비변화분석, 소비자를 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 산정, 주거보상비 산정, 각종 경제 사회 정책 입안과 평가 등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구역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과 각 도의 동부로 구분하여 16개 지역별로 작성된 추출단위 조사구명부에서 지역별 표본추출률은 서로 다르게 되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는 동일하게 되는 지역별 자체가중 표본추출법을 사용한다. 월평균 조사가구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외식비와 세부항목별 실지출은 물가연보의 2000년 소비자를 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였다. 실지출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text{실지출 산출식} = (\text{명목수준}/2000\text{년 소비자를 가지수}) \times 100$$

2. 외식의 범위

외식소비지출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외식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외식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외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초기에는 외식을 단순히 가정외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이라고 정의한 학자들도 있다(일본 외식산업문제연구회, 1981)¹⁰⁾. 그러나 土井利雄(1987)¹¹⁾은 외식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식사 장소뿐 아니라, 조리의 성격도 고려해서, 가정에서 제공이라고 하는 부가적 행위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것, 일부 포함시켜도 기본적인 맛의 변경이나 귀찮은 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등도 외식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오늘날에는 생활양식이 다양해지고 식생활양식도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외식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외식산업이 발전하고 테이크 아웃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산업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집에서 먹을 경우와 집에서 먹을 식사를 음식점이나 식료품점에서 제공하는 것에 의존하는 경우에 이를 외식과 내식 중 어떤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식사를 일본에서는 중식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HMR(Home Meal Replacement)이라고 한다(박기용과 신재영, 1998)¹²⁾.

오늘날 중요한 소비트렌드의 하나가 코쿠닝(cocooning)이다. 이 트렌드는 누에고치처럼(cocoon) 보호막 안으로 침거하려는 현상으로 사람들은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의 현실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포근한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Popcorn과 Marigold 저, 김영신과 조은정 역, 1999)¹³⁾. 코쿠닝 트렌드는 식생활을 간편하게 하려는 소비자 욕구의 증가와 함께 중식의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도시가계연보에서는 외식비를 점객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즉석에서 음식료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에 지불한 비용이라고 정의하면서 집에 가져가서 식사하는 것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식

표 1. 외식비의 세부 품목별 내용

품 목	내 용
식사대	음식점에서 지불한 식대 사업상 접대비는 제외
한국음식	한정식, 비빔밥, 곤탕, 냉면
중국음식	짜장면, 짬뽕, 기타 중국요리
서양음식	경양식, 스테이크, 양식뷔페
기타 식사외식	분식점 및 스낵코너에서의 식사, 일본음식, 직장에서 식권대, 야외도시락
학교급식대	초등학교 급식대, 유치(아)원 간식대 요정, 바, 나이트클럽, 간이주점과 같이
음주대	점객시설을 갖추고 술과 이에 따른 요리를 제공하는 업체 및 무도유흥장에 지불한 비용 점객시설을 갖추고 뱅, 생과자, 떡 및 커피,
기타 외식	차 등을 판매하는 제과점, 다방 등에서 식사한데 대한 비출

비에 중식비가 제외되어 있다.

도시가계연보에서는 외식비가 식사대, 음주대 및 기타 외식으로 분류되어 있고, 식사대는 다시 한국음식, 중국 음식, 서양음식, 기타 식사외식, 학교급식대로 구분되어 있다. 일식은 1981년까지는 개별항목으로 발표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기타 식사외식에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다. 품목분류의 상세한 내용은 표 1에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가계의 표본 특성

표 2에는 도시가계조사의 표본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평균가구원수는 1982년 4.45명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1989년까지는 4명 수준이었으나, 1990년부터는 3.99명으로 떨어져서 2002년에는 3.44명으로 감소하였다. 가구주의 연령은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38세 정도, 1991년부터

표 2 도시가계 조사 표본 특성(1982~2002)

년도 조사 기구수	가구 원수	가구주 연령(세)	소비지출 (원)	식료품비 (원)	외식비 (원)
1982	3,584	4.45	38.10	576,549	235,393
1983	3,751	4.37	38.26	606,813	239,262
1984	3,908	4.28	37.83	644,517	246,573
1985	4,210	4.21	38.14	677,404	254,056
1986	4,280	4.16	38.51	724,090	263,393
1987	4,372	4.08	38.38	807,263	284,974
1988	4,273	4.04	38.49	880,753	306,671
1989	4,293	4.02	38.37	1,058,920	337,714
1990	4,325	3.99	38.69	1,125,272	362,421
1991	4,281	3.97	39.36	1,228,370	388,187
1992	4,522	3.92	39.76	1,331,207	403,802
1993	5,000	3.84	39.86	1,376,764	406,811
1994	5,339	3.76	40.36	1,447,194	433,453
1995	5,347	3.73	41.10	1,537,506	445,846
1996	5,233	3.67	41.78	1,651,661	474,021
1997	5,095	3.64	42.36	1,650,937	473,774
1998	5,370	3.62	42.02	1,356,903	377,167
1999	5,246	3.59	42.90	1,512,282	421,364
2000	5,220	3.54	43.67	1,632,298	447,018
2001	5,141	3.49	44.30	1,692,722	445,324
2002	5,017	3.44	44.81	1,716,382	449,999
					188,534

1993년까지는 39세, 1994년부터는 40세로 증가하여 매년 조금씩 높아져서 2002년에는 44.81세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1982년에는 576,549원으로 2002년에는 1,716,382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증가추세를 보면 1996년까지는 증가하였는데, 1986년부터 1992년까지 특히 많이 증가하였다. 1997년은 전년도인 1996년에 비하여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외환위기인 1998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1999년부터는 1998년에 비하여 증가하기는 했으나, 2001년이 되어서야 1996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02년에는 과거의 수준정도로 증가하였다.

식료품비는 1982년에는 235,393원으로 2002년의 449,999 원으로 약 2배정도 증가함으로써 증가폭이 소비지출보다는 낮았다. 증가추세를 보면, 1996년까지는 조금씩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는 1996년에 비하여 조금 감소했으나, 1998년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1999년부터는 1998년에 비하여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증가폭이 매우 작아서 2002년도 분석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996년의 474,021원보다 작은 449,999원이었다.

외식비를 보면 1982년에는 14,082원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188,534원으로 약 13배 증가함으로써 소비지출과 식료품비에 비하여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증가추세를 보면 1997년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는 증가폭이 작았으나, 1985년 이후부터는 증가폭이 더 커졌다.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고,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1997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02년은 2001년에 비하여 약간 증가했을 뿐이다.

외환위기에 식료품비와 외식비의 지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채부담이 많은 가계들은 대처행동의 하나로 지출을 줄이거나 절약구매를 하고 식비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영, 1993 ; 손상희, 1995 ; 황덕순, 1993 ; 1995 ; 팽경인, 1988)^{12)~16)}.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대량실업과 소득감소, 주식시장의 침체 등에 따른 수입감소로 인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억제되었고, 정부와 언론에서 주도되었던 과소비억제 캠페인 등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였고, 식료품비와 외식비의 지출도 억제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차민아, 1998)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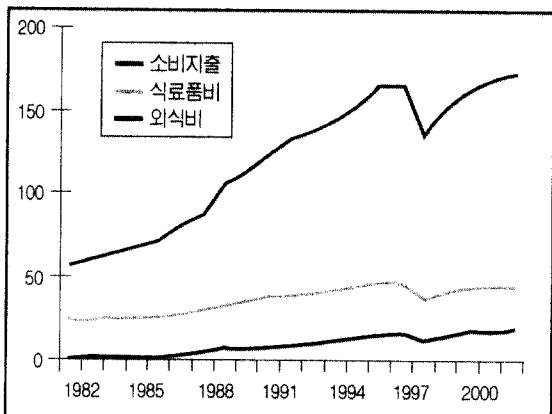


그림 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식료품비, 외식비 추이(1982~2002)

그림 1에서 소비지출, 식료품비, 외식비의 변화 추세를 보면 소비지출이 1986년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까지 크게 증가한데 비하여 식료품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외식비는 소비지출에 비하여는 적게 증가하였으나, 식료품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하였다. 식료품비와 같은 생활필수적인 소비지출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외식, 교육, 교양, 오락, 교통통신 등 선택적 소비지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생활필수품을 위한 소비지출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욕구와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와 용역을 선택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이승신·김기옥·김경자·심영·정순희, 2003)¹⁸⁾.

이상의 결과를 보면 외환위기를 제외하곤 대체로 가구원수가 감소할수록 외식비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가구원수의 감소는 핵가족화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이러한 핵가족화의 증가는 마이카시대의 도래와 함께 가족 단위의 외식기회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동력의 조건에 부합하는 성과 연령층만 선택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한 가족을 다가구로 분화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이러한 현상도 외식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나정기, 1998)¹⁹⁾.

표 3에는 2000년을 100으로 보고 년도별로 환산한 물가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1982년은 43.18이고 1987년까지

는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전 기간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였다. 1999년은 1998년에 비하여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2000년부터 다시 증가폭이 커졌다.

표 3. 소비지출가지수(1982~2002)

년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물가 지수	43.18	44.66	45.68	46.80	48.08	49.56	53.10	56.12	60.93	66.62	70.76
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물가 지수	74.15	78.80	82.33	86.39	90.22	97.00	97.79	100	104	107	

2.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와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표 4에는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와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 식료품비 중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에 40.83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2년에는 26.22%로 감소하였다.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엠겔계수라고 하는데, 가계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이다. 즉 엠겔계수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엠겔계수에 따른 생활수준은 다음과 같다.

- 21% : 상류생활
- 25% : 여유 있는 생활
- 30% : 다소 여유 있는 생활
- 35% : 위안할 수 있는 생활
- 40% : 다소 위안할 수 있는 생활
- 45% : 다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 50% : 겨우 생존가능한 생활
- 55% : 한계 이하의 생활

위와 같은 분류에 의하면 1982년은 다소 위안할 수 있는 생활수준이며, 1983년부터 1986년은 위안할 수 있는 생활수준, 1987년부터 1991년은 다소 여유 있는 생활, 1992년부터 2002년까지는 여유 있는 생활에 해당된다.

소비지출 중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에는 2.4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83년부터 계속 증가하

기 시작하였고, 아시안게임 이후인 1987년에 4.28%로 증가하였고, 서울 올림픽 이후인 1989년에는 전년도의 4.82%에서 6.28%로 크게 증가하였다. 1989년 이후 1997년 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외환위기인 1998년과 1999년에는 약간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여 2002년에는 10.98%를 차지하고 있다.

식료품비 중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에 5.98%에 불과하였으나 외환위기인 1998년을 제외하곤 계속 증가하여 2002년에는 41.9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증가폭은 낮은 실정이다. 1998년에 감소한 이유는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불필요한 지출의 첫 번째 순위로 외식이 떠오름에 따라 줄어든 가계 소득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은 외식을 자제하고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여 푸짐하게 먹겠다는 실속파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가격파괴 열풍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차민아, 1998)¹⁷⁾.

실제로 한국은행이 전국의 30개 도시의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식비지출계획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997년 1/4분기에 서는 95에서 1998년 1/4분기에서는 49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1999년 1/4분기에서는 다시 63으로 증가하였다. 소비자동향지수는 소비자동향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을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수로서 100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식비지출계획 소비자동향지수가 100을 초과 할 경우 외식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가구가 줄어겠다는 가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여 100미만인 경우 그 반대를 의미한다.

2000년 이후의 증가폭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외식산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집에서 주문하거나 테이크 아웃 식품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을 통한 가정식 배달과 테이크 아웃 식품은 주 5일 근무제의 확산과 더불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주말은 여유로워지는 반면 주중은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에 죄기는 바쁜 직장인들과 젊은 충들을 위한 간편화

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도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단위의 외출객이 외식보다는 간편식을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a)²⁰⁾.

표 4 식료품비와 외식비의 비율(1982~2002)

년도	소비지출중 식료품비 비율	소비지출중 외식비 비율	식료품비중 외식비 비율
1982	40.83	2.44	5.98
1983	39.43	2.60	6.59
1984	38.26	2.70	7.06
1985	37.50	2.80	7.46
1986	36.38	3.25	8.93
1987	35.30	4.28	12.11
1988	34.82	4.82	13.85
1989	31.89	6.18	19.39
1990	32.21	6.54	20.31
1991	31.60	6.76	21.40
1992	30.33	7.10	23.41
1993	29.55	7.80	26.40
1994	29.95	8.58	28.63
1995	29.00	9.14	31.53
1996	28.70	9.57	33.35
1997	28.70	10.40	36.27
1998	27.80	9.33	33.55
1999	27.86	9.90	35.52
2000	27.39	10.78	39.37
2001	26.31	10.81	41.09
2002	26.22	10.98	41.90

3. 외식비의 구성

표 5에는 외식비를 식사대, 음주대, 기타 외식으로 나누어서 구성비를 표시하였다. 식사대의 비중은 1982년에 71.2%를 차지하였고, 1983년에 67.48%, 1984년에 65.91%로 조금씩 감소하였고 1985년부터 1991년까지는 약간씩 증감했으나, 비중이 1982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2년에 1982년 수준으로 비중이 높아졌고, 외환위기인 1998년을 제외하곤 조금씩 증가하여 77.38%가 되었다. 음주대는 1982년에 24.17%고, 1989년까지 조금씩 증가해서 29.18%가 되었으나, 그 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19.25%로 감소하였다. 기타 외식은 1982

년에 4.82%, 1987년에 6.55%로 가장 높았고, 2002년은 3.37%로 가장 낮았다. 기타 외식은 1984년부터 1992년 사이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높았다.

표 5. 외식비의 구성(1982~2002)

년도	식사대		음주대		기타외식	
	지출액(원)	비율	지출액(원)	비율	지출액(원)	비율
1982	10,001	71.02	3,404	24.17	678	4.82
1983	10,644	67.48	4,335	27.48	795	5.04
1984	11,467	65.91	4,924	28.30	1,009	5.80
1985	12,615	66.55	5,152	27.18	1,190	6.28
1986	15,403	65.46	6,686	28.41	1,445	6.14
1987	22,472	65.10	9,785	28.35	2,262	6.55
1988	27,822	65.51	12,046	28.36	2,603	6.13
1989	42,422	64.80	19,103	29.18	3,943	6.02
1990	49,730	67.57	19,781	26.88	4,085	5.55
1991	58,073	69.92	20,506	24.69	4,482	5.40
1992	67,948	71.87	21,469	22.70	5,126	5.42
1993	79,214	73.77	22,837	21.27	5,329	4.96
1994	91,373	73.63	26,517	21.37	6,210	5.00
1995	104,304	74.20	29,367	20.89	6,908	4.91
1996	118,335	74.85	31,950	20.21	7,802	4.94
1997	128,518	74.80	34,704	20.20	8,601	5.01
1998	91,625	72.40	28,113	22.21	6,812	5.38
1999	112,140	74.93	30,819	20.59	6,709	4.48
2000	133,202	75.69	35,302	20.06	7,486	4.25
2001	140,013	76.52	35,840	19.59	7,126	3.89
2002	145,890	77.38	36,293	19.25	6,353	3.37

그림 2에는 음식유형별로 식사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꺼운선 그래프로 제시하였고, 표 6에는 음식유형별로 지출수준과 지출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1982년부터 1999년까지는 우리나라 도시가계는 외식을 할 때 한국음식을 먹는데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고, 그 다음이 기타 식사로 중국음식, 서양음식 및 학교급식에 비하여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부터는 한국음식보다는 기타음식에 더 많은 지출을 함으로써 우리의 외식패턴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97년까지는 중국음식이 서양음식과 학교급식에 비하여 높았으나, 1997년부터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음식에 비하여 높아졌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는 서양음식이 학교급식에 비하여 비중이 약간 더 높았으나, 1995년

부터 학교급식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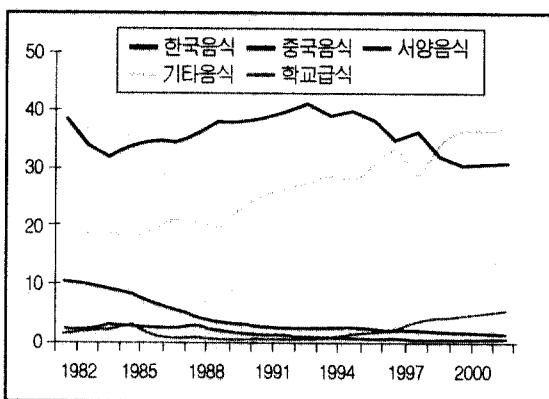


그림 2. 음식유형별 외식비율

4. 외식유형

한국음식은 1982년에 5,393원이었다. 1986년은 1985년의 6,474원에 비하여 8,214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1989년도 1988년의 15,376원에서 25,065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6년에는 61,244원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과 1998년은 감소하였는데, 1998년의 경우 1997년의 60,457원에 비하여 46,335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1999년부터는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2년에는 38.30%에서 1987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88년부터 1993년까지는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1999년에 특히 많이 감소하였다.

중국음식은 1982년에 1,461원에서 시작하여 1996년의 4,241원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였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감소하였고, 2001년까지 조금씩 증가했으나, 2002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중국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2년이 10.38%로 가장 높았고,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2년에는 1.80%로까지 감소하였다.

서양음식은 1982년의 지출액이 315원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였는데, 1988년이 1987년의 866원에 비하여 1,296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와 활위기인 1998년에는 969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서양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4년이 3.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1988년의 3.05%이다. 대체로 1982년부터 1989년까지는 2%대를 차지하였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1%대를 차지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1%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기타식사는 1982년에 2594원으로 시작해서 1997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58,462원이 되었다. 1998년에는 36,015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 다시 52,342원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타식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82년은 18.42%에서 계속 증가해서 1997년의 34.02%로 증가하였다. 1998년에는 28.46%로 감소하였다가 1999년에는 다시 34.97%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37.27%로 증가하였다.

외환위기에 한국음식이 기타음식과 서양음식에 비하여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소비자들에게서 복고풍이 불었고, 외식업체의 경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대

신 전통음식을 융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빔밥, 돌솥비빔밥, 영양 솔밥 등이 인기를 끌었는데, 돌솥비빔밥의 경우 먹은 후에 물을 부어 누룽지나 숭늉을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맛볼 수 없었던 향수를 느끼게 하였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구수한 된장찌개와 함께 보리밥으로 쌈을 싸먹는 쌈밥집이 증가하였고, 전통죽과 전통음료도 상품으로 개발되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통음식은 신세대에게는 새로운 상품으로 다가가고 있다(차민아, 1998)¹⁷⁾. 또한 외환위기에 달려를 절약하고자 하는 애국심이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기업에서도 애국심 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한국음식의 비중이 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교급식은 1982년에는 239원으로 시작하여 1985년의 585원까지 증가하였다. 1986년과 1987년은 감소하였고,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02년에는 11,130원으로 크게 증가하

표 6 음식 유형별 외식비와 비율*(1982~2002)

년도	한국음식		중국음식		서양음식		기타식사		학교급식	
	지출액(원)	비율	지출액(원)	비율	지출액(원)	비율	지출액(원)	비율	지출액(원)	비율
1982	5,393	38.30	1,461	10.38	315	2.24	2,594	18.42	239	1.69
1983	5,363	34.00	1,579	10.00	365	2.31	2,976	18.86	365	2.31
1984	5,591	32.14	1,583	9.10	552	3.17	3,308	19.01	433	2.49
1985	6,474	34.16	1,590	8.39	560	2.95	3,406	17.97	585	3.09
1986	8,214	34.91	1,630	6.93	634	2.70	4,581	19.47	343	1.46
1987	11,351	34.62	1,921	5.57	866	2.51	7,444	21.57	291	0.84
1988	15,376	36.20	2,011	4.74	1,296	3.05	8,735	20.57	405	0.95
1989	25,065	38.29	2,397	3.66	1,459	2.23	13,072	19.97	433	0.66
1990	28,174	38.28	2,476	3.37	1,316	1.79	17,207	23.38	556	0.76
1991	32,370	38.97	2,412	2.90	1,184	1.43	21,428	25.80	681	0.82
1992	38,070	40.27	2,609	2.76	1,364	1.44	25,130	26.58	776	0.82
1993	44,423	41.37	2,810	2.62	1,288	1.20	29,776	27.73	918	0.86
1994	48,813	39.33	3,474	2.80	1,563	1.26	36,230	29.19	1,294	1.04
1995	56,199	39.98	4,085	2.91	1,591	1.13	40,237	28.62	2,194	1.56
1996	61,244	38.74	4,241	2.68	1,529	0.97	48,271	30.53	3,051	1.93
1997	60,457	35.19	3,990	2.32	1,722	1.00	58,462	34.02	3,888	2.26
1998	46,335	36.61	3,316	2.62	969	0.77	36,015	28.46	4,989	3.94
1999	48,460	32.38	3,329	2.22	1,147	0.77	52,342	34.97	6,864	4.59
2000	54,221	30.80	3,843	2.18	1,580	0.90	65,171	37.03	8,387	4.77
2001	57,020	31.16	3,825	2.09	1,626	0.89	67,599	36.94	9,943	5.43
2002	59,327	31.47	3,386	1.80	1,771	0.94	70,275	37.27	11,130	5.90

*외식비 총액 중 각 음식 유형의 비율

였다.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에는 1.69%, 1983년부터 1985년까지는 조금 증가하였고, 1986년부터 1994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5.90%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1982년부터 2002년까지의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외식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시계열로 분석하였는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소비지출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식료품비 지출액은 약간 증가했으며, 외식비 지출액은 크게 증가함으로써 소비지출패턴의 고급화, 간편화, 현대화, 레저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함으로써 생활수준이 꾸준하게 향상되어 왔다. 이렇게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외환위기를 제외하곤 외식비가 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2년에 비하여 2002년에 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식료품비 중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98%에서 41.90%로 7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식생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외식의 중요한 트렌드의 하나인 테이크아웃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조리된 음식을 집으로 배달해서 먹는 식사가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외식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외식을 정의할 때 단순히 식사장소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도 감안하여 외식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외식비 지출액은 앞으로 더 증가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3. 외식의 2/3 정도는 식사대가 차지하고 있다. 식사대는 1991년까지는 감소하다가 1992년부터 2002년까지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음주대는 1989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은 19.25%로 1982년의 24.17%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기타외식도 1982년에는 4.82%를 차지했으나 2002년에는 3.37%

로 감소하였다. 음주대와 기타외식이 감소하고 식사대가 증가했다는 점은 외식이 특별한 날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감소하고 일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4. 외식비 지출을 음식유형별로 분석하면 한국음식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면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많았다. 한국음식은 1993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을 계기로 하여 기타식사가 한국음식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음식, 서양음식, 학교급식은 한식과 기타식사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작았다. 특히 중국음식은 1982년에는 10.38%를 차지하였으나 계속 감소하였고, 1997년 이후부터는 학교급식의 확대로 학교급식보다도 그 비중이 낮았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소비트랜드의 하나는 소비시장의 양면성이다. 양면성은 양면가치나 이중경향을 의미하는데, 심리학적으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상반되는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사회적으로는 획일성과 다양성, 기술과 자연, 일과 휴식 등 상반된 가치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양면적 사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서 음식문화와 관련된 것이 동양음식과 서양음식이 섞인 퓨전푸드의 증가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02b)²¹⁾.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통계에서 외식의 종류를 한국음식, 서양음식, 중국음식, 학교급식 및 기타식사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통계 자료에서도 1999년 이후 기타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이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가계연보의 통계에서 외식을 현실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상 도시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농가 및 어가의 욕구나 사회문화적 환경은 도시가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20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외식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 문헌

1. 류정순, 박혜련. 계층별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외식비의 빈곤선 설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277-288, 1996.
2. 강이주. 선택성 소비지출의 변동을 통한 소비패턴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4), 1989.
3. 김미향. 식료품 소비구조의 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4. 김정숙.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19-36, 1992.
5. 양세정.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1970-1990)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8:54-67, 1991.
6. 국은경제연구소 : 한국인의 소비생활, 1993.
7. 김정현, 최현자. 소득탄력성을 통해 본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3(4):269-290, 2002.
8. 外食産業問題研究會:外食産業の 現状と 展望. 地球社, 1981.
9. 土井利雄. 外食. 日本經濟新聞社, 1987.
10. 박기영, 신재영. 식사의 성립요건과 외식의 범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외식경영학 연구* 창간호, pp.179-197, 1998.
11. 김영신, 조은정 역(페이스 팝콘·리스 마리풀드 저). *클릭 미래속으로, 21세기 북스*, 1998.
12. 심영.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29-50, 1993.
13. 손상희.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133-143, 1995.
14. 황덕순.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182-194, 1993.
15. 황덕순.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6. 팽경인. 노동자가족의 노동력재생산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7. 차민아. 외식소비문화의 래트로 현상 연구. *Tourism Research*, 437-453, 1998.
18. 이승신, 김기옥, 김경자, 심영, 정순희. 가계경제분석. 신정, 2003.
19. 나정기. 외식산업 성장배경에 관한 소고. *관광경영학연구* 3, pp.115-137, 1998.
20. 삼성경제연구소 : 주 5일 근무와 소프트산업의 변화, 2002a.
21. 삼성경제연구소 : 소비시장의 양면성, 2002b.